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사업과 기술 전망

연사: 이호성 박사 (삼성전자 스토리지 사업부, 상무)

2005년 6월 1일 (수)

요 약

1950년대 중반 IBM에서 최초로 자기저장 방식을 이용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가 상용화한 후 50년이 경과하는 동안 단위 면적 당 저장 용량은 3500만배가 증가하였다. 획기적인 저장 용량의 증가로 HDD의 사용처가 전통적인 computer storage에서 벗어나 mobile-personal storage 등 consumer electronics 분야로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HDD 전체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5년도 HDD 시장의 크기는 250억불(25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HDD의 경쟁력은 고용량 저가격에서 나오므로 주기적인 새로운 정보 저장 기술의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HDD 사업의 동향을 소개하고 고용량 소형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 저장 기술 및 장래 전망을 나열-설명할 것이다

연사 약력

학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 (1979)

석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 (1981)

엔지니어 학위: Stanford University 기계공학과 (1986)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기계공학과 (1994)

1987-1993: IBM, East Fishkill, New York

1994-1996: Seagate Technology, California

1996-2003: Maxtor Corporation, California

2003- : 현재 삼성전자 스토리지 사업부, 상무, Servo-Mechanical Group 담당